

반복된 조직개편... 학교는 체감 못했다

도교육청, 본청 슬림화 재추진
약6천만 원 들여 연구용역 착수
교육계 “지원청 부담 우려...
현장 업무 경감 실효성 지켜봐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본청 슬림화를 통한 학교 중심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조직 진단과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현장 지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교육청은 본청 슬림화를 통한 학교 중심 지원 체계 전환과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조직진단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동안 진행되며, 소요 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6,362만 원 규모다. 전북교육청은 7월 말 제안서 평가와 계약 체결을 거쳐 본격적인 연구용역 실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3년 전임 교육감 시절 교육행정 효율화를 내세우며 3국 체제(정책국 신설) 등으로 커진 본청 조직을, 천호성 교육감 체제에서 불과 3년 만에 다시 축소·정비하려는 움직임이다.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어떤 명분과 실익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진단을 통해 본청은 정책 기획에 집중하고 현장 장학 등의 권한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다만 본청의 권한을 아래로 넘길 때 일선 교육지원청의 인력 충원이나 행정 부담 전가를 막을 보완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조직의 규모를 줄이고 권한을 이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떠안게 될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재정적 보완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전임 시절의 편제를 뒤집는 명분 위주의 개편이 아니라면,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으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따

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추진된 행정 조직 개편들이 교원들의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이나 학교 지원 강화로 체감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조직 진단과 슬림화 구조가 자칫 행정적 혼선만 가중시키고 현장과의 괴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전북교육청이 하반기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고문변호사 재위촉 등 주요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형식적 개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담아낼지 엄중한 점검이 요구된다.

/최성민 기자

김민석 오차범위내 선두... 2순위 경쟁서도 앞서



민주 당대표 여론조사꽃 조사
김민석 29.7% vs 정청래 24.6%
송영길 지지층 65.2% 김민석 선택
선호투표제로 2순위 표심 변수

'여론조사꽃'의 전화 면접조사 결과 당대표 선호도가 김민석 29.7%, 정청래 24.6%로 오차범위 내에서 김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론조사꽃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전화면접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및 무당층(595명) 대상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호도에서 '김민석 후보'가 29.7%, '정청래 후보'가 24.6%, '송영길 후보'가 8.6%로 나왔다. 무응답은 32.9%였다.

권역별로는 서울 지역에서 '정청래'가 29.5%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경인권(33.3%), 호남권(31.6%), 부·울·경(32.8%), 강원·제주(34.3%) 등 주요 지역에서는 '김민석'이 앞서는 흐름을 보였다. 대구·경북('김민석' 25.9%, '정청래' 22.4%)과 충청권('김민석' 25.7%, '정청래' 23.4%)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

연령별로는 '김민석'이 30대와 70세 이상에서 앞섰고, 40대부터 60대까지는 두 후보가 박빙 양상을 보였다. 18~29세 연령대에서는 '없음' 응답이 77.8%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정청래'가, 중도층에서는 '김민석'이 각각 앞섰으며 보수층에서는 두 후보가 접전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전당대회에 직

용되는 선호투표제(순위선택제) 규칙에 맞춰 각 후보를 1순위로 지지한 응답자들의 2순위 선호 현황도 함께 파악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후보가 탈락하고 그 표가 2순위 후보에게 재배분되는 선호투표제 특성상, 3위인 '송영길' 후보 지지층의 2순위 표심이 경선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조사 결과, '송영길'을 1순위로 지지한 응답자(51명) 중 65.2%가 2순위로 '김민석'을 선택했으며, '정청래'를 선택한 비율은 16.9%에 그쳤다. ('없다/잘 모름' 17.9%)

'김민석'을 1순위로 지지한 응답자(174명) 역시 2순위 선택에서 '송영길'을 지목한 비율이 61.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정청래'는 15.3%에 머물렀다. ('없다/잘 모름' 23.4%) 이를 통해 '송영길'·'김민석' 두 후보 지지층 간의 명확한 교차 선택 경향이 확인됐다.

반면 '정청래'를 1순위로 지지한 응답자(148명)의 경우, 2순위로 '송영길'을 선택한 응답이 25.4%, '김민석'을 선택한 응답이 23.1%로 비슷하게 분산됐다. 특히 2순위 판단을 유보한 '없다/잘 모름' 비율이 51.5%로 절반을 넘어, '정청래' 지지층은 타 후보로의 표 이탈보다는 후보 중심의 선명한 결집세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3사가 제공한 무선(100%) 가상번호를 통한 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0.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자치도, 농업인 목소리 정책 반영 확대

농정거버넌스 개편 TF 회의
민간 중심 전담기구 설치 논의
농업인 의견 정책 반영 강화
농정 '현장 협치' 속도

전북도가 농업·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농정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한다.

도는 27일 도청에서 '전북 농정거버넌스 개편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정거버넌스 운영체계 개편과 전담기구 설치방안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은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현장 중심 농정협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농민단체 대표와 학계, 연구기관, 행정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정거버넌스 전담기구 설치와 전담인력 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열린 1차 TF 회의에서는 공동위



현장 중심 농정협치 구축 속도

전북도가 27일 도청에서 농정거버넌스 개편 TF 2차 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 농정협치 체계 구축과 농업인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해 정책 결정권자가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위원회 규모를 효율화하고 분과위원회 중심의 실질적인 논의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농정거버넌스를 상시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전담기구는 농어업 현장과 행정을 연결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정책 의제 발굴, 위원회 운영 지원, 현장 의견 수렴, 정책 제안, 성과 공유 등 농정협치 전반을 지원하는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농업인단체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민선 9기 농정철학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정협치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

국장은 “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행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농정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적극 협력하는 실질

적인 농정협치 체계를 통해 농업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전북 농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안전부터 미래산업까지 전방위 점검

온열질환·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문화예술인 성장사다리 구축
전북국제금융센터 추진 점검
“실행 중심 미래성장” 전략 주문

전북도는 27일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폭염과 여름철 안전관리부터 문화예술인 지원, 미래 성장엔진 대응 등 도정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열질환 예방과 물놀이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 이 지사는 “온열질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발일을 하는 고령 농업인과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하천과 계곡 등 주요 물놀이 지역과 위험구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가용 자원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와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인 성장사다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지사는 “창작 지원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예술품 판매와 창업 지원 등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확대와 단계별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 정책과 연계한 K-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기반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밝혔다.

계절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숙소의 화재 예방과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불편 사항도 적극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27일 이원택 지사 주재 간부회의

<사진=전북도>

이 지사는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새롭게 마련할 성장엔진 육성계획은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치지 말고 도내 기업의 수요와 산업 현장을 반영한 실행 중심의 전략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 실·국에서는 내년도 신규 사

업을 구상할 때 기존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보완해야 한다”며 “전북이 보유한 농생명 자원과 특화병원, 특화학교 등 고유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의회>

윤수봉, 완주 소양 폐기물공장 주민 우려 청취

반대추진위 찾아 현장 간담회
“주민 건강권 우선” 신중론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은 지난 25일 완주군 소양면 폐기물 파쇄공장 반대추진위원회를 방문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진위 공동위원장인 임대훈 이장협의회장과 문원근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해 폐기물 파쇄공장 설립 추진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생활환경 악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설립 예정지 인근에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과 신왕마을이 위치해 있는 등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인 만큼, 사업 추진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집회를 이어가며 폐기물 파쇄공장 설립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윤수봉 의원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주민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불법 대부광고 차단법 대표 발의

SNS·플랫폼 허위광고 근절 추진
대부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담야

윤준병 국회의원이 27일 SNS·대부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상에서 유행하는 불법사금융 및 허위·과장 대부광고로부터 서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일명‘불법 대부광고 차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SNS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등록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도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규정되어 있어 협회의 심의 권한과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윤준병 의원

이에 윤 의원은 이같은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위법 광고에 대한 협회의 시정·사용중단 요구권 신설,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신문·인터넷신문·방송·전기통신 및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불법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불법 온라인 대부광고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물놀이 드론 예찰·구명조끼 보급 안전망 강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총력
드론 활용 비관리지역 예찰
구명조끼 1000개 추가 보급

전북도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물놀이 비관리지역 안전예찰을 실시하고 구명조끼 1,000개를 추가 보급하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8월 20일까지 7개 시군의 하천과 계곡, 다슬기 채취 구역 등 물놀이 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안전예찰을 추진한다.

드론은 하루 6차례 정기 비행을 통해 위험지역을 실시간으로 예찰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위험행동,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한다. 위험상황이 확인

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 대응을 지원해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 특히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폭넓게 예찰할 수 있어 기존 순찰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물놀이 안전장비 확충에도 진력한다.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재난관리기금으로 마련한 구명조끼 1,000개를 순차적으로 보급한다. 구명조끼는 물놀이 사고 우려지역과 다슬기 채취구역 인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비치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용객이 필요할 때 쉽게 착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안전수칙 실천을 생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물놀이 사망사고 54건



<사진=전북도>

가운데 14건(26%)이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드론을

활용한 안전예찰과 구명조끼 보급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한병도 “이번주 본회의서 형소법 처리” 30일 상정

형소법 개정안 당론 채택
선관위 특검법도 함께 상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번주에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의원총회



한병도 원내대표

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간 상호 결제를 강화하는 정책 대

안을 도출했다”며 경찰의 뇌주기, 영터리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랑하는 토론과 속의 문화가 이번 형소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이어진 결과”라며 “국민과 당원 여러분, 각계 전문가와 의원들까지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모아주셨다”며 민심을 수렴한 사실을 애둘러 강조했다.

한 대행은 “검찰개혁은 허울뿐인 구호

가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오는 10월 2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민주당 주도로(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검수완박을 내용으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이날 선관위 특검법도 동시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모기감염질환 예방 위한 7가지 행동수칙



1
집 주변
고여 있는
물 없애기



2
질은 향수니
화장품
사용 지제



3
야외활동 시
밝은 색 옷
착용



4
모기퇴치제
올비르게
사용하기



5
과도한
음주
지제 하기



6
야외활동 후.
빈드시 샤워
하고, 땀제기



7
잠들기 전
집안
짐김 하기

전주시민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디지털 조사’ 선행 미참여자 방문 조사 실시

전주시민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일까지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의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기간 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소지에서 정부24 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어지는 방문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이다.

이들 세대는 앞서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방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그간 주민등록 변경 신고 등을 미뤘었던 세대를 위한 자진 신고 혜택도 제공된다. 사실조사 기간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50%-80%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의회-전북전주슈퍼마켓協 골목상권 안정 간담회

동네슈퍼 경영위기 협력 다짐

전주시의회(의장 최주만)가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 최주만 의장은 27일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박춘곤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골목상권 안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편의점·이커머스 확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슈퍼마켓의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



다. ‘골목상권 안정’ 간담회 간담회는 유통환경변화 등 고물가 시대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위해 마련됐다. 박춘곤 이사장은 “전주시의회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주만 의장은 “동네슈퍼와 골목상권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역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청사 주차장 시민 중심 운영체제 개편

8월 1일부터 민원인 우선 주차

전주시청사 주차장이 시민 중심 운영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시는 시민들의 주차공간 부족, 불편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

중심 주차장 운영 개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은 오는 8월부터 최소한의 필수 차량을 제외하고, 부서별 지정 주차구역을 폐지하는 등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해 민원인과 시민이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방문자 중심의 운영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는 직원들의 자가용 중심 출근 문화 개선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개주일데이’ 운영 △대중교통 이용 우수직원 인센티브 지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

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이 먼저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소방 별쏘임 78.3% 7~9월 집중 발생

별쏘임 심정지 사례도 발생 별 알레르기 반응 시 즉시 119 신고 당부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도내 별쏘임 관련 119 출동이 총 1592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출동은 1247건으로 전체 78.3%를 차지해 별쏘임 사고가 여름철과 초가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9월이 497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8월 440건(27.6%), 7월 310건(19.5%)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도내 별쏘임 119구급 출동은 총 66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36건으로 5월 15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해 본격적인 별쏘임 사고 위험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별쏘임으로 인한 심정지 환자가 총 6명 발생했으며, 올해도 관련 사례가 1건 확인됐다.

지난 6월 전주에서는 벌에 쏘인 뒤 호흡 곤란과 의식저하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을 보인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별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향수나 화장품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색 긴 소매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벌에 쏘인 뒤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어지럼증,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인, 임업 종사자, 벌초 작업자 등 야외활동이 잦은 도민은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벌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 벌독 민감도와 중증 알레르기 반응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 위험이 높은 경우 전문의 상담을 통해 응급약품 처방 여부를 검토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김은지 기자

전북경찰 음주운전 ‘숙취·심야’ 단속 강화

내달 31일까지 한층 강화

전북경찰청의 도·시민 음주운전 근절 위한 숙취·심야 단속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음주운전 강화는 최근 휴가철과 맞물린 시기 아침 출근 시간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사고 증가에 따른 이유로 파악됐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북경찰청 음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자단을 위해 기존 단속보다 한층 강화된 일제단속 및 불시 단속을 병행하는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1급지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는 매일, 2·3급지 경찰서는 주 3회 이상 상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매주 목, 금요일에는 출근길 숙취단속과 야간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주요 휴양지와 관광지, 휴유가·변화, 고속도로 톨게이트(TG)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30분 단위 단속장소 수시 변경하는 스샷이동식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음주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처벌된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출근길 숙취운전 △낯시간대 반주운전 등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경찰은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까지 단속 대상을 전방위

확대 실시해 이어가고 있다. 이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약물측정을 병행해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음주운전사고 차단을 위해 단속과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소방용품 적정 교체·관리 당부

전주덕진소방서는 안전한 소방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용품 적정 교체·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장기간 사용된 소방용품의 성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으로 내용연수가 규정된 소방용품이 분말소화기에 한정된 만큼, 관계인과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자체 점검을 통해 실제 성능과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정비·교체하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자동확산소화기, 소방호스, 연기감지기,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등 주요 소방용품의 제조연월과 권장 내용연수 경과 여부, 외관 상태 및 작동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인에게 노후·불량 소방용품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불량사항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반영해 적절한 정비·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간이완강기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 15년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이는 법정 의무 교체기한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실제 성능과 관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성능 저하나 파손·부식·미작동 등 불량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 화재안전조사와 자체점검 표본조사 등 현장활동은 물론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권장 내용연수와 노후·불량 소방용품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점검 시 관련 서식을 활용해 권장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불량 소방용품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인과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 국가산단 분양절차 추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공구 내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승인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업무용지와 주차장용지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절차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계획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조성토지의 공급)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을 받아 조성토지의 공급 시기와 공급 방법 등을 수요자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승인한 것이다. 국가산업단지 내 글로벌 대기기업들의 잇따른 입주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비즈니스 지원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급되는 이번 조성토지는

용도별로 일반업무용지 1필지(1공구 업무1)와 주차장용지 2필지(2공구 주4~5)로 구성된다. 공급은 ‘새만금사업지역 토지공급 기준’에 따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가격은 복수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금액으로 한국자산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최종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분양 과정에서도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분양공고문에 명시하고, 분양안내소(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적 보완 조치도 완료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가족센터 외국인주민 ‘와다다다 축제’ 개최

전주시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화합하는 축제를 열렸다. 전주시가족센터는 지난 25일 2026년 외국인주민 축제 ‘와다다다 축제’를 개최했다. ‘와~ 다양한 구성원이 다함께 다 모이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은 ‘와다다다’ 축

제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화합하는 교류의 장으로 꾸며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물(水)만난 우리가족! 수(水)상한 페스티벌’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사전 체험 부스를 시작으로 마술 공연과 벨리 댄스, 어린이뮤지컬 공연,

20여 가정이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오징어게임’ 등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주시가족센터는 축제 다음날인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내외국인이 서로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전주 글로벌 문화행사 ‘투게더in전주’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투게더in전주’의 2번째 국가인 네팔의 전통놀이 및 문화를 체

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200여명의 네팔 유학생과 외국인 주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네팔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와 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등 모든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교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이번 ‘2026년 찾아가는 수출상담회 (우즈베키스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늘까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자격 및 세부 지원내용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완주군, 지역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AI·수소 등 전략산업 연계... 실무형 인재 양성 및 실증 추진

전북대학교가 완주군과 손잡고 지역 미래 성장동력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대는 양오봉 총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오전 대학본부 대접견실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이른바 '서울대 10

개 만들기'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과 대학의 상생 협력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첨단로봇과운드리, 그린수소시스템, 농생명·바이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등 전북대의 전략 산업 성장엔진과 연계한 인재 양성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완주군 내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간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내 AI 교육 확대와 완주군 전략산업 연계 AI 융합 연구 및 실증 사업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완주군의 산업적 강점과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열어가겠다"



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의 미래산업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여름방학 맞춤형 학습 지원

계절학기 201개교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생의 학습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27일 방학 중 학습 지원 계획을 밝히고,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도약 계절학기'와 '예비교원 학습지원튜터 캠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학습도약 계절학기'는 학교별로 3~5명 규모의 소규모 학급을 꾸려 개별 수준에 맞춘 교과 보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201개 학교에서 607개 프로그램이 개설돼 초등학생 1,208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교육대학교와 협력한 '예비교원 학습지원튜터 여름방학 학력신장 캠프'도 진행된다.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되며, 총 120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참여 학생들은 예비교원 튜터들로부터 교과 지도를 받고, 자기주도 학습 코칭과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방학은 학습 격차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대학과 협력해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새 학기 학습 자신감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항1981 섬관광택시' 택시요금 50% 지원

9월 시범 운영 시작

군산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의 원도심과 고군산군도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군산항1981 섬관광택시 이용 지원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6 지역주도형 관광서비스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환승과 이동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고군산군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사업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는 택시 이용요금의 50%를 군산사랑상품권으

로 지원한다. 지원받은 상품권은 원도심과 섬지역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관광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사업의 출발 거점인 군산항1981 여객터미널(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항1길 12)은 과거 군산 내항 여객터미널을 복합문화관광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장소다. 재단은 이 공간이 지닌 '섬으로 향하는 관문'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해 원도심과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섬 관광의 출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시범 운영

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이용 대상은 군산시민을 제외한 관외 거주 관광객이며, 이용 희망자는 재단 홈페이지 내 전용 예약페이지를 통해 이용일 기준 3일 전까지 예약하면 된다. 운영 코스는 관광객의 여행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편도 코스는 군산항1981을 출발해 장자도·선유도·무녀도·신시도·야미도 등 원하는 섬 한 곳까지 이동하는 방식이다. 시간제(왕복) 코스는 군산항1981을 출발해 이용시간 동안 고군산군도 주요 관광지와 체험시설 등을 자유롭게 둘러

본 뒤 다시 군산항1981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간제 코스는 자유코스와 추천코스 가운데 원하는 여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관광객이 일정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고군산군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산항1981을 중심으로 원도심과 섬지역을 연계하는 관광 동선을 구축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윤홍길, 문학의 집' 열린 문화공간으로

시·수소 등 전략산업 연계

익산 '윤홍길, 소라단 가는 길 문학의 집'이 시민과 문학을 잇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역 문인인과 시민을 위한 문화 예술 공간인 '윤홍길, 소라단 가는 길 문학의 집'이 문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개관한 '윤홍길 소라단 가는 길 문학의 집'은 윤홍길 작가의 문학세계를 소개하고 시민들이 문학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전시 공간과 함께 세미나실을 갖춰 시민들의 모임과 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이달 세미나실에서는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물리학과 석좌교수이자 '우주 속의 우리'의 저자인 이승헌 교수를

초청한 대담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우주와 과학, 삶을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오는 10월에는 윤홍길 작가와 '윤홍길 소설 사전'을 편찬한 김병선 작가가 함께 하는 특별 대화도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실 이용과 대관 신청은 윤홍길 소라단 가는 길 문학의 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리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윤홍길 소라단 가는 길 문학의 집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게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문화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프로그램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학과 문화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성황

250여 명 경쟁 펼쳐

'제1회 세계유네스코도시 고창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가 지난 24~26일(3일간) 고창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회는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보치아연맹, 고창군장애인체육회, 고창군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최·주관했다. 전국 각지에서 선수와 임원 등 25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 보치아(Boccia)는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공을 던지거나 굴려 표적구에 가장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산해 승패를 가리는 경기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스포츠로 알려져 있다.

고창군은 대회 기간 참가 선수단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 운영과 시설 관리, 자원봉사 지원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원활한 경기 운영으로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적인 대회 운영 역량을 입증했고, 개최지 종합우승이라는 값진 성과까지 거두며 장애인체육 중심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전국에 알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국 보치아 선수들이 서로의 기량을 나누고 우정을 쌓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동초 김석곤 첫 조명

정읍시립박물관이 오늘부터 암각서와 서예 작품, 기록자료를 통해 정읍 출신 서예가 동초 김석곤(1877~1953)의 삶과 예술세계를 처음으로 조명한다. 박물관은 오는 10월 25일까지 기획전실에서 '돌에 남긴 기록, 동초 김석곤'을 개최한다. 동초 김석곤의 삶과 예술세계를 살펴보고 지역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다. 전시에서는 어진 화사로 알려진 정읍의 대표 서화가 석지 채용신이 1918년에 그린 김석곤 초상을 비롯해 후손이 보관하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기증한 서예 작품과 기록자료, 박물관이 조사·수집한 유물 등 30점을 선보인다. 특히 1918년 간행된 '정읍군지' 여백

에 김석곤이 직접 기록한 '동초각자기'와 '삼동서첩', '정희서첩'이 처음 공개된다. 내장산과 두승산, 칠보산을 비롯한 전국 명산에 남긴 암각서 탁본도 전시해 그의 예술 활동과 여정을 소개한다. 가족사진과 정읍 독립운동가인 동생 김달곤의 초상, 관련 자료도 함께 공개해 김석곤의 가족사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전시가 동초 김석곤이 남긴 삶과 예술을 새롭게 이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지역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도내 시각예술 분야 중견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2026 중견 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사업'의 참여 예술인을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전북 예술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자 주요 문화 자산인 중견예술인들의 예술적 자산을 보존하고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20년 이상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50세부터 65세(1977~1962년생)까지의 시각예술 분

야 중견 예술인이며, 접수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3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jbct2024@hanmail.net)을 통해 진행된다. 선정된 예술인 16명에게는 작품집 제작, 번역, 작품 촬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작비용이 지원되며,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된다. 한편 신청서 서식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창작지원팀 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더위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폭염 안전 수칙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여름철 질병 조심하기

군산해경, 장자도서 금어기 꽃게 불법조업 현장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오늘(27일) 새벽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에서 꽃게 금어기간 중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획물을 육상으로 옮기던 현장을 적발하고 관련 어선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최근 새만금 일대에서 꽃게 불법조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 정보를 토대로 장자도와 선유도 일대 항·포구에서 잠복 및 순찰 활동을 벌여왔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 5분경 장자도 선착장 슬립웨이에 선명 미상의 어선 1척이 접근하고, 잠시 뒤 1등급 냉동탕차가 어선에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이어 어선에서 냉동탕차로 꽃게를 옮겨 싣는 장면을 확인한 해경은 현장에 접근해 적발했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꽃게 금어기간은 지난 6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로, 이 기간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하는 행위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현장 당국 과정에서 경사진 슬립웨이에 주차돼 있던 해경 직원의 잠복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꽃게를 적재하던 냉동탕차를 추돌해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탑차 내부에 있던 운전자가 해상 추락해 현장에 있던 해경 직원이 직접 입수해 구조했고, 탑차 운전자와 해양경찰관 1명이 머리와 어깨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은 차량이 경사진 슬립웨이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길고양이 중성화 폭염기 일시 중단… 9월 재개

정읍시가 폭염으로 일시 중단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오는 9월 재개한다.

시는 무더위로 인한 수술 부위 감염을 막고 포획 과정에서 길고양이가 받는 스트레스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200마리로, 암수 구분 없이 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예 마무릴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정읍지역에 서식하는 몸무게 2.5kg 이상의 길고양이다. 임신 중이거나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개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정읍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으로 직접 전화하면 된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사업과 달리 별도의 방문 신청 절차는 없다.

신기한 축산과장은 “폭염 기간에는 고양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술을 잠시 중단하지만 9월부터 재개되는 만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부송도서관 '미술로 배우는 과학' 프로그램

익산시 부송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미술 속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가족 참여형 공연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내달 8일 오후 2시 부송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여름방학 특별공연 '과학일까? 미술일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미술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흥미롭게 풀어낸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미술을 관람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체험과 실험을 통해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며 호기심과 탐구심을 키울 수 있다.

관람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자녀를 둔 가족 100명으로 가족당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공연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부송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농가 경영 지원 확대 2(題)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내달 21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내달 21일까지 인삼 농가의 시설·장비 도입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인삼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철재 해가림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는 시설과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을 비롯해 두둑형성기, 이식기, 파종기 등 인삼 생산에 필요한 주요 시설·장비다.

사업비는 보조금 50%와 농가 자부담 50%로 구성된다.

신청 대상은 신규 인삼 재배농가 또는 인삼 자조금

을 납부하는 인삼 재배 농업경영체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농가와 친환경 인증농가를 우선 지원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 수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정읍시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원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인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며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마리당 50만원 지급

정읍시가 유전체 분석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한우 암소를 도태하면 마리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한우 개량과 안정적 인 수급 조절을 위해 “2026년 한우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암소를 선별·도태해 암소 개량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사육두수를 조절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총사업비 5200만원을 투입해 대상 농가에 저능력 암소 한 마리당 50만원의 도태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복특별자치도 한우 유전체 분석에서 하위 20%로 확인된 암소를 보유한 농가다.

해당 개체를 보유한 농가는 자동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며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11월까지 해당 암소의 도축이나 난소 결찰을 완료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생산성이 낮은 암소의 자발적인 도태를 유도하고 우수 개체 중심의 번식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동시에 한우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취약지역 정주여건 개선

노후주택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

익산시가 낭산면 장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에 본격 나선다.

익산시는 낭산면 장암마을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7년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생활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생활안전시설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낭산면 장암마을은 인근 석산 개발과 군 사격장이 위치해 대형 차량 통행이 잦고 소음과 먼지 발생 등의 생활 불편이 있어 왔다.

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51%에 달하는 데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도 다수 남아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선정으로 익산시는 국비 16억 원을 확보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차례로 수립한 뒤 노후주택 정비와 마을 기반시설 확충, 하천 절개지 개선 등을 단

계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천권 농촌활력과장은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제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기반 마련

정읍시가 상동 일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를 정읍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지정 구역은 롯데리아 상동점부터 우리순대국밥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명륜진사갈비부터 학산로 130 어시장까지의 구간이다. 음식점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점포가 모여 있는 지역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상인회와 협력해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왔다. 이번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다.

충정로 골목형상점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점들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완료되면 5~7% 할인 혜택을 활용하려는 소비자의 방문과 이용이 늘어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충정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상인들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계절근로자 폭염 대응 ‘최선’

다국어 안내자료 활용 폭염 대응요령 전달

군산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7일 군산시농업인회관 1층 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폭염 대응능력을 높이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폭염특보 발효 시 행동요령 △온열질환의 종류와 주요 증상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여름철 농작업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와 다국어 안내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안전수칙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 지역 농가에는 농촌형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과 농가 상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96명 등 모두 122명이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날 교육에는 100여 명이 참석해 폭염 대응요령과 농작업 안전수칙을 익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공개 모집

전문가 5명 이내 위촉
내달 14일까지 접수

군산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5명 이내로 공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비상근 위촉직으로 활동하며, 군산시와 소속 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시정 권고, 의견 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학 부교수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이 있는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격을 취득한 뒤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내달 14일 오후 6시까지 군산시청 6층 감사담당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redtria1@korea.kr)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의 고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조사·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체납관리단’ 운영

납부 안내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읍시가 내달부터 4개월간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다.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체납관리단’을 올해 처음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납부를 독려한다. 이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하면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다. 세외수입은 징수 실적이 낮은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등 5개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체류형 미식관광 무녀도편’ 성료

식문화·해양자원 연계

군산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고군산군도 무녀도에서 진행한 체류형 미식관광 프로그램 ‘GO! 군산 섬해진미’ 2회차(무녀도편)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GO! 군산 섬해진미’는 고군산군도의 자연환경과 식문화, 지역 먹거리를 연계한 체류형 미식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무녀도편은 참가자 모집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을 모았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신청이 이어졌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프로그램

은 무녀도의 자연과 로컬 미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갯벌 바지락 캐기 △낚시 및 통발 체험 △직접 채취한 바지락으로 칼국수를 만드는 쿠킹클래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씨푸드 바비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미식 토크 △순수건 천연염색 체험 △환경과 건강을 함께 생각하는 플로깅 등에 참여하며 무녀도의 자연과 식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시 관계자는 “GO! 군산 섬해진미 무녀도편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지역의 자연과 식문화를 경험하며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며 “앞으로도 고군산군도의 다양한 해양 자원과 지역 식문화를 연계한 체류형 미식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산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소방서, 구조·생활안전 출동 12.1% ↑

익산소방서(서장 소철환)는 2026년 상반기 구조 및 생활안전활동 통계 분석 결과 전년 대비 모든 출동 건수와 구조 인원이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출동 건수는 2,320건으로, 전년 동기(2,069건) 대비 12.1% 증가했으며 일평균 출동 건수는 12.8건, 구조 인원은 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출동 중 구조활동은 1,489건으로 전년(1,420건) 대비 4.9% 증가했고, 생활안전활동은 831건으로 전년(649건) 대비 28% 증가했다. 구조 인원은 총 366명으로 전년 동기(307명) 대비 19.2% 늘었다.

구조활동 출동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536건(3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화재 396건(26.6%), 위치확인 271건(18.2%), 자살추정 86건(5.8%)이 뒤를 이었다. 교통사고 출동의 경우 지난해보다 32.7%(13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공휴일과 대체휴무가

있는 봄철(3~5월)에 차량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신고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안전활동의 경우 동물처리가 273건(3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화재경보 확인 226건(27.2%), 벌(집)제거 150건(18.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벌(집)제거 출동은 전년 동기 대비 47.1%(48건) 급증했다. 이는 이른 고온 현상과 더불어 도심 주변 서식지 변화의 여파로 아파트 베란다, 주택 처마, 공원 등 주민 생활권 깊숙이 벌집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소철환 소방서장은 “상반기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다발 유형에 대한 맞춤형 구조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순창군, 대통령 공약·국비 확보 공조

민주 남장임순 당정간담회 개최 지역 핵심사업 지원방안 논의

순창군은 지난 24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장임순 지역위원회와 당정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사업과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순창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지역 정치권과 공유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순창군에서 최영길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과장, 관련 사업 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당 측에서는 박희승 국회의원, 장승필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순창군의회 의원, 보좌진 등이 함께했다.

이날 군은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사업과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주요 지역 현안 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과 국비 확보 전략에 대해 참



<사진=순창군>

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특히,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사업으로는 △경마공원 유치 호남상생 협력사업 △순창 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강천산 K-웰니스 힐링관광지 조성사업 △순창군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국가예산 사업으로 △국도 24호선 병목지점 개선사업 △미생물 기반 전통장류기업 제품표준화 지원사업 △순창 인계~쌍치 국도건설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교통 여건 개선, 전통장류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 기반 확충과 밀접한 사업으로, 순창군은 정부예산 반영과 국가계획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사업으로는 순창 변전소 증설 및 신규 유치 건의가 다뤄졌다. 군은 인프라 보강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 부처와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캐릭터 향이·몽이 전국 최고 선정 도전

공공캐릭터 페스티벌 본선행 남원시, 시민 투표 독려 이벤트

남원시 대표 캐릭터 '향이'와 '몽이'가 '2026 대한민국 지자체 공공·캐릭터 페스티벌' 본선에 진출하며 전국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향이와 몽이는 남원을 대표하는 고전문학 춘향전의 주인공 춘향과 몽룡을 모티브로 탄생한 캐릭터다. 춘향은 고양이 '향이', 몽룡은 진돗개 '몽이'로 재해석해 남원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을 친근하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알리며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본선 진출을 계기로 향이·몽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온라인 투표 이벤트를 운영해 전국 최고의 공공캐릭터 선정에 도전한다.

온라인 이벤트는 29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2026 대한민국 지



<사진=남원시>

자체 공공·캐릭터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k-character.co.kr)에 접속해 소셜 로그인 후 본선 투표에서 향이·몽이를 선택하고, 투표 완료 화면을 캡처해 남원시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모바일 교환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8월 26일 발표하고 8월 28일까지 모바일 쿠폰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원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카드뉴스 제작과 온라인 광고를 추진해 투표 참여 방법을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산업단지에 문화쉼 배달한다

커피·간식트럭 현장 지원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병행

완주코컬잡(JOB)센터가 더위에 지친 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8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완주군 내 5개 산업단지를 순회하며 '산단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

이 행사는 완주 일반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 테크노밸리 1·2단지, 완주농공단지 일대를 총 10회에 걸쳐 순회하며 커피와 간식 트럭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완주산단 제조업 근로자 특화사업인 '완주에서 안주(安住)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출퇴근 및 주거 편의 지원과 더불어, 산업단

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 복지 서비스를 결합해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운영 장소는 ㈜정석케미칼, ㈜엘제이, 대립씨앤씨(주) 인근 등 접근성이 좋은 산업단지 내 공공장소와 공영주차장이며, 점심 시간대(11:00~14:00)를 활용해 찾아가는다.

특히 완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 상담을 병행해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로 해소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최은아 경제정책과장은 "완주군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정착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고액채납자 가택수색…은닉재산 압류

도 광역징수기동반 합동 단속 공매 통해 채납세액 충당

순창군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온 고액 채납자를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채납처분에 나섰다.

군은 지난 24일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액 채납자 2명을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하는 현장징수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채납자에 대해 강력한 채납처분을 실시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군 징수팀과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으로 구성된 합동수색반은 채납자의 거주지와 실거주 의심 지역을 사전에 조사한 뒤 불시에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금과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 19점을 압류했다.

압류한 현금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즉시 체납액에 충당했으며,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 압류 동산은 감정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각대금은 채납 지방세와 채납처분비 등에 충당된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바로 뛰는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송영길, 완주서 민생·청년 소통 행보

봉동생강골시장 상인 애로 청취 2030 청년과 일자리·주거 대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 후보가 지난 25일 완주군을 방문, 민생경제 현장을 살피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송 후보는 먼저 봉동생강골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의



송영길 후보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는 완주지역 당원들과 만나 민주당의 혁신과 지방정치의 역할, 민생 중심의 정당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당원들은 지역 현안과 당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전달하며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여 진행된 2030 청년 차담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업, 주거, 지역 정착, 정치 참여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고민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참석한 청년들은 지역에서 살아가며 느끼는 어려움과 정책 제안을 직접 전달, 송 후보는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당 운영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 바이오기업, 中 티엔스 유통망 탄다

코빅스, 티엔스와 8억 공급계약 화장품 시작…생활용품 확대

남원시 관내 바이오기업인 ㈜코빅스(대표 김종희)가 세계적인 유통 기업인 중국 티엔스(TIENS) 그룹과 화장품 초도물량 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중국 티엔스 그룹 본사 관계자들이 남원시 소재 코빅스 본사와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화장품 및 생활용품 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한 끝에 결실을 맺었다. 코빅스는 세럼, 토너, 앰플, 아이크림 등 주요 화장품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샴푸·트리트먼트·바디워시 등 생활용품 분야까지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 텐진에 본사를 둔 티엔스 그룹은 생명과학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등을 주력으로 전 세계 224개 국가 및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연매출 1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 판매기업이다. 코빅스는 이번 협력에 따라 내년도 티엔스 유통망을 통한 매출이 2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D 기반 화장품 OEM·ODM 전문 기업인 ㈜코빅스는 국내외 우수 브랜드와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 중국 티엔스(글로벌) 외에도 미오리오(중국), LPC(영국) 등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매출 확장으로 향후 대폭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남원시가 지역 바이오산

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재)남원시사이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천연물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화장품 시험·인증 △제품 개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이르는 '바이오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역 바이오기업의 해외 진출은 남원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여 남원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아동 물놀이장 폭염 속 '복새통'

개장 첫 주말 1000여명 발길 가족 단위 이용객 인산인해

순창군 아동 물놀이장이 지난 25일 개장에 주말 동안 가족 단위 이용객들의 방문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맞춰 운영하는 아동 물놀이장은 개장 첫날인 25일에 개장식과 함께 기념행사로 관내 풍선 공연 및 버블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말 동안 약 1,000여명이 찾았다.

순창읍 군민예술회관 야외무대 광장에 운영하는 물놀이장은 순창군의 지원으로 순창군 청년회소(순창JC)가 위탁 운영하며, 지난 2023년에 개장해 매년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함께 올해로 벌써 4년째를 맞이했다.



<사진=순창군>

물놀이장 내에는 연령대별 에어풀장, 슬라이드, 탈의실, 썬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이용대상은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까지이

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운영 기간동안 무엇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시설관리공단 'SS100' 마을버스 안전·친절 캠페인

완주군시설관리공단 마을버스의 난폭운행을 예방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북버스공제조합 전북지부와 합동으로 나섰다.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100일 동안 완주군 마을버스의 안전성과 친절도를 높이는 '에스에스(SS) 100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Safe)과 친절(Smile)을 100일간 집중 교육·관리한 뒤, 이용 주민이 직접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2일 난폭운행 근절 선언식 및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운전원 간담회, 군민 안전평가 순으로 밀도 있게 추진된다.

선언식에는 운수종사자 35명 전원이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하며 현장 변화의 의지를 다졌다.

운전원들은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정차질서 위반을 3대 근절 과제로 삼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를 나타냈다.

공단은 캠페인 기간에 전북버스공제조합 전북지부의 전문 교육을 더해 운전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이후 진행되는 군민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사매면, 동물매개활동 다문화가정 소통교육

남원시 사매면은 2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사매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공감한 스푼, 다(多)색 행복 가족교육'을 진행했다.

남원시가속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가족 구성원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서로를 이해하며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매면 다문화가족 4가정 10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동물매개 활동을 활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양성평등 교육과 가족소통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양성평등 교육에서는 성평등의 의미와 가족 내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문화를 살펴봤으며, 가족소통 교육에서는 라포 형성과 의사소통의 중요성,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는 방법 등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김식록 사매면장은 "앞으로도 남원시가속센터와 협력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월드비전 공모 선정 취약가구 아동 냉방비 지원

완주군이 월드비전이 추진하는 '아이시원' 사업에 선정돼 여름철 폭염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총 1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드림스타트 아동 5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 원씩 지급됐으며, 지원금은 전기요금 납부를 비롯해 선풍기, 여름이불 등 냉방용품 구입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이시원' 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월드비전은 사랑의 도시락 나눔,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지원 등 위기 아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 가정의 한 보호자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껏 사용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번 지원 덕분에 아이가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여름방학을 맞아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양육환경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이 확인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재난 대비 주거·구호체계 강화

임시주거·복지안전주택 정비 구호물품 4권역 분산 비축

남원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에 대비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정비하고 재해구호물품을 권역별로 분산 비축하는 등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41개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또 금동 의총로 일원 유흥빈집을 활용해 3개 동 규모의 복지안전주택을 마련했다. 복지안전주택은 재해나 주거 위기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에게 1개월간 무상 제공하며, 필요하면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재해구호물품 운영 체계도 개선했

다. 기존에는 금지면 재해구호창고를 중심으로 물품을 보관했으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대강·사매·인월·산내면 행정복지센터 등 4개 권역에도 구호물품을 분산 비축했다. 이를 통해 외곽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응급구호물품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남원시는 올해 '2026년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구호창고 점검을 완료하는 등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해 왔다. 양충모 시장은 "임시주거시설과 복지안전주택 운영, 권역별 구호물품 분산 비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한 주거 지원과 구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故 유성엽 의원 제1회 추모위원회, 고창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故 유성엽 국회의원 제1회 추모위원회가 지역 인재 양성과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해 (재)고창군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24일 오후 고창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유가족 대표인 유재도 씨(故 유성엽 의원 동생)를 비롯해 이경기 추모위원회 사무총장, 박순금 재무총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난 제1회 추모제를 마친 후 진행된 추모위원회 결산총회 의결에 따른 것이다. 추모위원회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아진 소중한 마음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고인이 생전에 깊이 마음 썼던 지역 미래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잔여 기금을 장학 사업으로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탁식에 참석한 유가족과 추모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이 고창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故 유성엽 의원님의 애민 정신과 봉사의 가치가 오래도록 지역사회에 이어지길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진봉면지사협 중복 삼계탕 나눔 추진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최준영)가 복날을 맞아 무더위에 취약한 관내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과 우뚝가사리 냉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중복을 앞두고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혹서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위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각종 한방 재료를 꼭 우려낸 육수로 영양가득한 삼계탕을 끓이고, 다채로운 채소를 넣은 시원한 우뚝가사리 냉국을 각각 100인분씩 제작했다. 이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고, 복날의 무더위를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을 보탰다.

/김제=온봉기 기자

(주)세아베스틸-군산시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 체결

15년째 ESG 나눔 실천

(주)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은 27일 군산시와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세아베스틸은 총 2억 5천만 원을 전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설·추석 명절 성품 지원 △저소득 가정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여름·겨울나기 성품 지원 △연말 이웃돕기 성금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1천8백만 원 상당의 서늘레이터 선풍기 200대도 함께 기탁했다.

장영수 자원본부장은 “최고의 소재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인류의 삶을 가지 있게 만드는 세아베스틸의 비전처럼, 기업의 성장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 학교 밖 청소년, 솜품 영상으로 전국 대회 ‘우수상’

비행 청소년 아닌, 꿈 향해 비행

완주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솜품’ 영상으로 전국 공모전 무대에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완주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7일 소속 셀러드 기자단 청소년들이 기획·제작한 ‘꿈을 향해 비행하는 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최한 ‘20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수상을 받은 이 작품은 ‘질문이 바뀌면, 꿈이 보인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편견 대신 가능성을 바라봐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박현정 센터장은 “청소년들이 경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정읍중 36회 동문 7인, 순창군에 기부금 전달

정읍중학교 제36회 졸업동기 7명이 순창군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순창군은 지난 24일 군수실에서 오연필 GLS정읍지점장을 비롯해 유명수 대표(유명철물종합상사), 오승욱 대표(인쇄나라 집현전), 이두형 대표(기아자동차 금오점), 김종표 대표(㈜에코푸드시스템), 김형준 대표(갈비마루), 최한신 소장(미술거래법연구소) 제36회 졸업

동기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인근 지역인 정읍 출신 동문들이 평소 순창의 변화와 발전에 큰 관심을 기울여오던 중, 지역 간 상생 협력과 고향사랑 실천에 뜻을 모으면서 마련됐다.

기탁자들은 “순창 군민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문들과 뜻을 모아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민·관 손잡고 만경강 쓰레기 걷어냈다

완주군이 최근 봉동읍 만경강 봉신교 일원에서 하천 수질 오염을 막고 쾌적한 둔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만경강 수상 정화활동’을 펼쳤다.

정화 활동에는 완주군 관계자를 비롯해 해병대 완주군지회, 민간 자율방재단, 지역봉사단체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보트 등 수상장비를 동원해 육지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강 수면 위의 표류 쓰레

기와 갈대밭·수풀 사이에 걸려 있던 부유물, 폐플라스틱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지역봉사단체 회원들은 제방 주변의 노상 쓰레기까지 깨끗이 치우며 하천변 산책 구간을 정돈했다.

이번 집중 정화 활동은 그간 손길이 닿지 않던 수면 위 쓰레기를 걷어내 만경강 천변 환경을 깨끗이 다듬는 계기가 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로타리클럽, 장애인복지관서 복날 맞이 배식봉사 펼쳐

국제로타리3670지구 고창로타리클럽(회장 신흥 강성준)은 지난 24일 고창군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복날을 맞아 장애인과 관계인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봉사를 실천했다.

이날 강성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들은 고창군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과 복지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봉사를 진행했으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닭백숙과 닭죽을 정성껏 제공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배식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음식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로타리의 봉사정신을 몸소 실천했다.

신흥 강성준 회장은 “로타리 봉사는 ‘우리’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찾아가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익산 함열읍에 나눔 꽃 활짝 착한가게 5곳 동참

익산시 함열읍에 착한가게 5곳이 새롭게 동참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함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미래·박종석)는 27일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한 착한가게 5개소를 방문해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착한가게는 △성모의원 △영화미용실 △와리건강원 △금풍이용원 △영진제분소다. 특히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복지이장이 직접 발로 뛰며 참여 업체를 발굴해 의미를 더했다.

착한가게 발간에 앞장선 김동성 상지원마을장은 “마을 일을 하며 주변의 힘든 이웃들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사장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참 든든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나눔을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열대야 극복 방법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알코올 및 카페인 음식 자제

미지근한 온도로 샤워하기

자기 전 핸드폰 전자기기 사용 자제

탈의대신 얇은 잠옷 입고 자기

〈一事一言〉



최정호의 행정 내공, 익산의 과감한 ‘신산업 대전환’을 기대하며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도시의 경쟁력은 과거의 영광만을 내세워 지키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고, 기회가 왔을 때 산업 체질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결단력과 추진력에서 비로소 결정된다. 최근 익산시가 선언한 ‘첨단 신산업 도시 대전환’ 비전은 이러한 도시 생존 방정식에 던진 매우 강렬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이다.

오랫동안 익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생명과 식품, 보석, 그리고 전통 제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호남선의 중심 거점으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부심도 깊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거센 물결과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기존의 산업 구조만으로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명확했다. 익산시가 기존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퍼지컬 AI, 미래 모빌리티 등 최첨단 산업군으로 도시의 축을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 거대한 청사진이 단순한 정치적 수식이나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장과 시민들에게 비상한 실체감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이 거대한 도전을 이끄는 최정호 익산시장이 지닌 독보적인 ‘행정 내공’과 ‘전문성’ 때문이다.

최정호 시장은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라북도 정부부지사라는 거치고 전북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평생을 대한민국 국가 행정의 최전선에서 바쳐온 대표적인 행정·교통 전문가다. 국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거대한 국책 사업이 어떠

한 메커니즘으로 추진되는지, 나아가 복잡하게 얽힌 중앙정부의 규제 타래를 풀어내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번 익산시의 대전환 전략 곳곳에는 이러한 그의 전문적 경험과 통찰이 아주 깊게 녹아 있다.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땅’과 ‘규제’다. 익산시는 제3산업단지 확장부지(27만㎡)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165만㎡(약 50만 평) 규모의 제5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신규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하여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라는 확실한 유인책을 마련한 점은 국토 및 산업 행정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적 안목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교통 및 모빌리티 분야의 전환 전략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히 역사를 개보수하는 수준을 넘어 교통과 산업, 상업과 문화가 하나로 결합된 거점으로 원도심을 재창조하겠다는 대담한 구상이다. 도산항공교통(UAM), 드론 산업, 자율주행 시범버스 도입 등 미래형 모빌리티 체계 구축은 KTX 호남선 철도 교통의 중심지였던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미래 첨단 교통의 허브로 재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물론 대전환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나 첨단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 이행은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와 치열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고난도 과제다. 단순히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중앙정부의 정책 기류를 신속하게 기회로 포착하고, 시의회와 지역 상공인, 그리고 시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고도의 정교한 리더십이 끊임없이 요구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과의 경쟁 속에서 익산만의 차별화된 산업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의 이번 행보에 깊은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최정호 시장이 중앙과 지방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네트워크, 그리고 입증된 행정력이 도시의 재도약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지방도시의 위기라는 정체된 바람 속에서 익산시는 신산업이라는 바람개비를 들고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최정호 시장의 행정 내공이 익산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청년들이 다시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첨단 신산업 도시로의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 과감한 도전에 정성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지방도시의 위기라는 정체된 바람 속에서 익산시는 신산업이라는 바람개비를 들고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최정호 시장의 행정 내공이 익산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청년들이 다시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첨단 신산업 도시로의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 과감한 도전에 정성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오늘의시

바다 / 조병화

사랑하는 사람아
그리운 사람아
먼 곳에 있는 사람아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아
바다가 우는 걸 본 일이 있는가
바다가 흐느끼는 걸 본 일이 있는가
바다가 혼자서 혼자서

스스로의 가슴을 짊어내리는
그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은 일이 있는가
네게로 영 갈 수 없는
수많은 세월을
절망으로 깨지며 깨지며
혼자서 혼자서 사그라져 내리는
그 바다의 울음소리를 들은 일이 있는가

시인 약력 : 1921년 경기도 안성 출생, 1940년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 고등사범학교 물리화학과를 졸업했다. 경성사범학교, 서울고 교사에 이어 경희대 문과대 학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대한민국 문학상, 금관 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시집으로 ‘하루만의 위안’, ‘인간고도’, ‘공존의 이유’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2003년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사설

성역 없는 수사로 종교의 정치 침투 의혹 끝까지 밝혀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 의혹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수사당국이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나섰다. 아직은 ‘가입 정황’이 확인된 단계이며 불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만약 특정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인 정치 활동과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교단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경선이나 당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는 한 치의 성역도, 정치적 계산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거대 종교단체든 소규모 단체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어느 한쪽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다른 한쪽은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수사 결과를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오직 증거와 법률에 따라 조직적 지시가 있었는지, 중앙 차원의 개입이 있었

는지, 실제 선거나 당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각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원 수만 늘리겠다는 단일한 조직 관리로 외부 세력의 집단 가입을 방치했다면 정치권 역시 반성해야 한다. 대규모 동원 가입을 걸러낼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특정 조직이 당내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개방성이 생명이지만, 그 개방성을 악용한 조직적 침투까지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방임이다.

더 이상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가 종교의 조직력을 기대하는 왜곡된 관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진실이다. 누가 연루됐든, 어느 정당이든, 어느 종교단체든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끝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정치권 역시 방어와 정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조직적 정치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사실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 국가의 원칙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다.

독자투고

자살 유족 회복 돕는 원스톱 지원 확대 환영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정신의학 프린티어스 발표에 따르면 자살 유족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 위험이 약 22.5배 높다. 자살 유족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상속·부채·학비 등 다양한 법적·경제적 문제에도 직면하는 만큼, 자살 사고 발생 직후 가능한 신속히 심리상담과 적절한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발표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담인력은 자살사고가 발생하면 주간에 해당 경찰서 등 자살 유족이 있는 현장에 출동해 유족을 위로하고 서비스를 즉시 안내한다.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

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심리·정서 지원, 법률·행정처리비, 정신과 치료비, 학자금, 일시주거비, 특수청소비 등 환경·경제 지원 지역사회복지 연계를 한 번에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이 서비스를 받은 유족의 경우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비율이 사고 발생 직후 27.8%에서 3개월 후 6.5%로 4분의 1이 하로 감소했으며, 자살 생각을 가진 비율도 같은 기간 11.2%에서 6.4%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비율 역시 3.2%에서 2.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재단은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았던 시·도에 대해 설명회를 직접 실시하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유족 맞춤형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이 전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자살 유족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읍서 수사과 경위 김민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화/ 목/ 금/ 토/ 일 -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입문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순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CO₂ 줄이기, 바로 지금 나부터!

우리의 작은실천이 푸른 하늘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JBT 전북타임스신문

최훈식 군수 “내일이 기대되는 장수 만들겠다”



미래농업·활력도시·문화관광·소통행정 민선9기 장수 대도약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장수군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를 군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민선8기 동안 장수군 최초 예산 5천억 원 시대 개막,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전국적인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등 장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 준 장수군은 민선9기에는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려 군민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선9기 장수군정은 5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장수군은 △기본소득을 넣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 조성 △기회가 넘쳐나는 미래농업 육성 △모여들고 성장하는 활력도시 실현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장수 조성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의 장수 구현을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민선8기가 장수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 변화를 군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다”며 “앞으로 펼쳐질 4년 동안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선9기 군정 핵심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넣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을 내세웠다. 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돌봄,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군민 삶의 기본 영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장수형 기본사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농업 분야에서는 장수한우, 장수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지역 대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지키는 미래농업 기반을 구축한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스마트농업과 유통·가공 혁신을 추진하고 장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셋째 정주·생활 기반 확충도 민선9기 핵심 과제다. 장수군은 청년과 귀농귀촌인, 생활인구 등 다양한 인구가 지역에 모이고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구 활력이 지역경제 성장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관광 분야에서는 장수 누리파크, 장안산 역사숲, 뜰봄샘 국가생태관광지, K-샤모니, 산악관광 자원 등을 연계해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장수'를 만들어간다. 청정 자연과 산악관광 자원을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하고,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상권 소비와 생활인구 확대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군정의 최우선 가치를 군민으로 삼고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다. 장수군은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군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 인터뷰〉

Q. 먼저 재선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과 함께 군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선8기에 이어 민선9기 장수군수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위대한 장수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은 장수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며 더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군정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수의 더 큰 도약을 간절히 염원하는 장수 군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며 그 뜻을 받는데 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Q. 민선8기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민선8기 장수군은 여러 분야에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장수군 최초 예산 5천억 원 시대를 열었고,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전국적인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도 장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장수군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이제 민선9기는 그 성과 위에서 군민 삶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Q. 민선9기 장수군정의 가장 큰 방향은 무엇입니까?

“민선9기 장수군의 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입니다. 민선8기가 장수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면, 민선9기는 그 변화를 군민의 삶 속에서 분명한 성과로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장수군은 군민과 약속한 5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4년 동안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군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 민선9기 핵심 메시지로 '기본소득을 넣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본소득이 군민 삶의 안정적인 토대라면, 기본사회는 소득뿐 아니라 돌봄,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삶의 기본 영역을 함께 보장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군민 누구나 삶의 기본 영역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수를 '기본소득을 넣어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모델'로 만들어가는 데 군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Q. 장수군 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농업은 장수의 뿌리입니다. 농민이 웃어야 장수가 웃습니다. 장수군은 장수한우, 장수사과, 장수토마토, 장수오미자, 장수상추, 장수양파 등 지역 대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회가 넘쳐나는 미래농업'을 통해 농가소득을 지켜가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증가 등 농업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장수 농업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스마트농업,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 대표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농업이 장수의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은 장수군이 반드시 넘어야 할 현실입니다. 민선9기에는 정주·생활 기반을 확충해 청년, 귀농귀촌인, 생활인구 등 다양한 인구가 모이고 머무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인구 활력이 지역경제 성장 기반으로 이어지는 '모여들고 성장하는 활력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Q. 관광 분야에서는 어떤 변화가 기대됩니까?

“장수는 천혜의 자연과 청정한 매력을 가진 고장입니다. 이제 그 가능성을 관광과 지역경제, 생활인구 확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장수 누리파크, 장안산 역사숲, 뜰봄샘 국가생태관광지, K-샤모니, 장수의 산악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사계절 사람이 찾아오는 관광도시 장수'를 만들겠습니다. 머물고, 걷고, 쉬고, 다시 찾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성장시켜 관광객의 방문이 지역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Q. 군민과의 소통행정은 어떻게 강화할 계획입니까?

“장수군정의 최우선 가치는 군민입니다. 장수군은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군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은 군민의 삶과 멀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현상으로 찾아가고, 작은 목소리도 가볍게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의 장수'를 만들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더 책임 있게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Q. 4년 뒤 군민들에게 어떤 장수군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4년 뒤에는 군민 여러분께서 '장수가 달라졌다',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 '내일이 더 기대된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수군은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라는 비전 아래 군민 삶의 기본을 더 든든하게 하고, 농업과 관광,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장수군민과 함께 장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장수군민들에게 다짐과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두 번씩이나 저를 믿고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장수군민 여러분의 깊은 뜻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제 앞으로 4년, 저는 오로지 장수군민만 바라보고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마음 그대로 항상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하게 '군민을 섬기는 군수',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장수군민 여러분! '모두가 누리는 행복,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장수'의 비전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장수군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장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수=최진수 기자